

1999년 2월 2일, 한국통신 사내벤처 4인방 탄생

한국통신에서 한꺼번에 4명의 벤처기업가가 탄생했다. 2일 공식출범한 소프트가족, 쏠리테크, 한국통신정보기술, 한국통신데이터 등이 그 주인공.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 700번 전화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유통을 주 사업으로 펼치는 벤처기업이고, 쏠리테크(대표 정준)는 이동통신 통화영역 확장사업에 출사표를 냈다. 한국통신 정보기술(대표 김성룡)은 국내 인터넷 지도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전망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업계에 도전장을 낸 한국통신데이터(대표 김기철)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원들의 벤처창업에 적극 지원하면서 벤처창업 열풍에 동참했다.

아직도 전래 한 한국통신 출신 1리 벤처기업들. 자랑스런 벤처의 이름으로 모두들 장수(長壽)하시길.

1999년 2월 13일, 벤처기업 늘면서 벤처빌딩도 급증

벤처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벤처빌딩의 인기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인 벤처빌딩은 산업단지공단의 산단공벤처센터가 1호로 지정된 후 그 수가 1년 만에 28개로 늘어났다. 이중 19개가 서울에 몰려있으며 경기도의 6개를 포함하면 25개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송파벤처센터, 관악구의 오성벤처타운과 오너벤처타운이 대표적인 벤처빌딩으로 꼽힌다. 한편 메디슨과 핸드소프트처럼 벤처기업이 사옥을 벤처빌딩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생겼다.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벤처빌딩 간 경쟁도 치열해져 새로운 벤처풍속도를 형성하고 있다.

레헤라밸리, 포이밸리의 명성을 구로밸리와 대덕밸리로 옮겨와 재현하고 있는 벤처빌딩. 쪽쪽 뺐은 벤처빌딩처럼 벤처도 쪽쪽 뺐어 나가라!

2000년 2월 2일, 대기업의 벤처 '벤처마킹' 붐

벤처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내부 조직을 활성화할 방편으로 벤처기업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세분화된 임원조직을 대폭 슬림화하거나, 성과급제를 실시해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를 갖추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 것. 임직원 전원에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한 대기업도 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눈길을 끈다. 이런 변화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벤처마킹당하 벤처, 역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 할 만하다. 브라보 벤처 라이프스!

만화로 읽는 마케팅 교과서 《맛있게 먹는 마케팅 남남》



마케팅은 이제 전문용어가 아니다. 생활 전 분야에 잠재된 것이 마케팅이지만 아직도 마케팅은 난공불락의 분야로 느껴진다. 이에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마케팅을 알고자 마케팅 관련 서적을 들춰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케팅에 대해 막연히 감은 잡고 있지만 남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마케터들을 위해 재미있는 마케팅 기본서가 나왔다.

《맛있게 먹는 마케팅 남남》은 마케팅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로 구성되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수십만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마케팅 목표 설정, 평가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마케팅 프로세스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쉽게 읽혀지는 만화를 따라가는 사이 머릿속에는 마케팅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가 자리 잡는다.

책은 기업과 마케터들이 궁금해 하는 12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다양한 예를 들어 만화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써여있다. 전체를 쭉 훑어 마케팅에 대한 두려움을 벗은 후, 한 번 더 꼼꼼히 정독한다면 마케팅에 대한 확실한 기본기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거름 퍼냄)